

일 시

2013년 2월 28일(목) 07:30

장 소

세종호텔 3층 세종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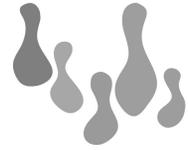
주 관

육아정책연구소

2013

제 5 차

누리과정
발전포럼



제 5차 누리과정 발전포럼

제 5차 누리과정 발전 포럼 진행 일정

- 일시 : 2013. 02. 28(목), 07:30 ~ 09:30
- 장소 : 세종호텔 3층 세종홀

시 간	일 정
07:30~08:00	조찬
08:00~08:05	인사말씀 이영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08:05~08:10	2012년도 포럼 결과보고 및 향후 추진 계획 이영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08:10~08:25	발표 1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08:25~08:40	발표 2 박초아 (전국시도보육정보센터협의회장, 울산광역시보육정보센터장)
08:40~09:20	전체토론
09:20~09:30	제 6차 포럼 공지 및 폐회

차 례

1. 「누리과정 발전포럼」 발표자료	1
●●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발표 1 이경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2
발표 2 박초아(전국시도보육정보센터협의회장, 울산광역시 보육정보센터장)	11
2. 2012년 누리과정 발전포럼 결과보고	18
3. 부 록	22
붙임 1. 「누리과정 발전포럼」 추진 계획	23
붙임 2. 「누리과정 발전포럼」 위원 구성	25
붙임 3. 「누리과정 발전포럼」 토론회 개최 일정 및 토론 주제	27



**1. 「누리과정 발전포럼」
발표자료**

1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이 경 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1. 들어가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구분된 우리의 보육, 교육을 하나로 묶기 위한 선결과제로 도입된 것이 누리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3, 4, 5세 과정이 다 통합되니 모든 아동이 같은 교육 과정으로 배울 수 있어 교육격차가 줄어 다행스런 일이다. 복잡한 유아교육이 하나로 묶일 날도 멀지 않았단 생각이 든다.

0-5세 무상보육, 육아 시대를 맞았지만 아직 학부모에겐 실질적 혜택이 느껴지지 않고 과거 유아교육은 행복이었는데 이젠 고통으로 변해가고 “애들 어릴 때 돈 모으라.” 들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유아교육비가 대학등록금과 맞먹어 “어서 초등학교나 갔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니 무상보육이란 말이 거짓처럼 느껴진다.

학부모야 국가가 만든 교육과정을 교사가 잘 가르쳐주길 바랄 뿐인데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막막하지만 ‘내가 배워야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 제목처럼 유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갈수록 커진다.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과 교육 기초시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육아부담, 저 출산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누리과정을 얘기하고 싶다.

2. 누리과정 도입을 보는 학부모의 눈

1) 교육과정

- 누리과정으로 교육과정 통합을 시작했지만 유아교육과 보육의 오랜 역사 속에 이미 교육과정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의 헌신과 학계, 부처의 노력이 모두에게 만족을 주었음에 감사한다.

-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자료(제 4차 누리과정 발전포럼)를 살펴보면,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이 실내외 환경을 추가구성 했는가? 하는 질문에 6.6%만이 추가 구성했다고 응답했고,
- 도입 후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영역이 균형적으로 이뤄진다는 평가와 활동구성과 지도상 ‘어려운 영역이 없다’는 응답이 51%이상이란 것,
-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5세반 지도 경험도 2-3년 등 별 차이 없으며 오히려 수당 지급문제로 교사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등... 무리 없이 과정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긍정적인 면

- 교사의 활동준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은 5대 영양소를 생각하며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 역할처럼 생각되어 고마운 마음이 들고 교사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 어린이집 교사의 높은 참여와 노력으로 어린이집 위상과 교사 자긍심이 높아졌다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로 유보통합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 주간계획안 작성 시 인성교육, 바깥놀이, 대집단 활동의 비중이 증가하고 특별활동 시간이 오후로 옮겨져 오전 교육이 충실해졌으며 원외활동이 다양해지고 신체운동 시간이 늘었다는 점은 아주 반가운 일이다.
- 하루 3-5시간 편성, 운영 원칙이 준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오후 일과는 휴식과 자유놀이를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에 환영하며 이것이 현실에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

3) 개선사항

- 5세 누리과정이 취학 전 조기교육이 아니란 것을 강조해야한다. 초등과정과 연계되어야하는 것은 맞지만 학습 개념보다는 연계를 위한 발달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잘 뛰어놀고 어울리고, 약속, 질서를 배우고 안정된 인성, 습관, 창의력, 사회성, 이해력 등 초등교육의 기본인 생활교육이 중심될 수 있도록 기본

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 “3, 4세 누리과정 도입에 교육과정평가원 담당자가 참여해 과목별 연계를 고민하자.”는 얘길 듣고 엄마들이 놀란 바가 있다. 지나친 것은 오히려 부족한 것만 못하니 교육과정 전문가는 오히려 배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누리과정이 연령별로 제시되어 활용이 용이하다는데 혼합연령반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혼합반의 연령별 구체적 지도자료 제공 필요성에 공감한다.
 - 혼합반 운영은 외동자녀시대, 사회성교육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권장할만하므로 운영매뉴얼로 보완해 주길 부탁드린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도서는 당연히 일원화 되어야한다. 처음에 따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정도다.
- 누리과정 지도서 획일화 지적이 많은데 지역 내 유치원, 어린이집 간의 교류 또는 워크숍 등을 통해 남의 것을 보고 배우는 기회를 지역보육센터에서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행정서류 준비 등의 업무가 늘어나서 교육이 소홀해질 수 있는 점이 염려된다. 평가인증 등 사전 준비단계라 더욱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감사기간을 늘리고 정보공개를 확대해 학부모 선택을 통해 검증받는 제도로 유도하면서도 서류,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여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4) 누리과정 재정지원

누리과정 도입에 엄청난 예산이 지원된다는 걸 알았다.

5세 아동 당 2-30만원(국공립은 6만원),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교사당 2-30만원)등이 지급되었지만 학부모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으니 기관에게 유리한 보육, 육아 정책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지책이었을지 모르지만 교육기관으로서 국가교육 정책에 호응하는 것은 의무인데 처음부터 너무 재정지원 형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 지원 후 만족도 조사에서 유치원, 그 중 공립, 또 어린이집에선 국공립, 법인이 만족도가 낮은 것은 좋은 조건에서 오히려 감사를 못 느끼는 것으로 결코 재정지원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다.

- 누리과정 정착을 위한 지원 같은데 2013년 3, 4세까지 확대되면 모든 과정 담당교사에게 지원할 예산은 확보된 것인지 궁금하다. 돈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하는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중 교재구입비 62%, 시설개선비 13%가 쓰였지만 가정어린이집은 보조교사 인건비에 30%가 쓰이니 교육환경 차이가 더 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 누리과정 운영비 중 일부를 보조교사 인건비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는 타당하다. 교재구입, 시설비는 한계가 있고 보조 인력은 꼭 필요하므로 인건비 활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아동 수에 따라 운영비가 지원되는 방식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원액의 격차가 커지는 방식이므로 여차하면 기껏 마련한 제도가 규모가 큰 시설만 이롭게 하고,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할까봐 염려된다. 큰 시설의 운영비 지원은 한정할 필요가 있고 작은 규모는 통폐합 유도로 적정규모, 시설을 확보해 인증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일 것이다. 어린이집 4만 여개 모두를 지원한다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3. 누리과정의 발전을 기대하며

- 만 3, 4, 5세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다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혼란스럽다. 과거에는 유치원으로 족했는데 유아교육 시작시기가 빨라지면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전 과정이 되었다. 또 워킹맘 증가로 0-3세 보육을 어린이집이 감당하게 되며 어린이집의 수가 급증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 3세 교육시기가 겹치는 관계로 학부모의 선택 고민도 깊어졌다.
- 작년 11월에 보도된 ‘유치원생 선발-꼼수’ 기사는 소모적인 유치원 입학 경쟁과 그로 인한 패배감, 상실감을 겪게 되는 엄마들의 고통이 전해졌다. ‘유치원 떨어지면 가는 곳이 어린이 집’이 되게 만드는 이 이원화 체제는 어서 끝내야 한다.
- 보육만 사회복지라고 우길 때가 아니다. 36개월 미만을 ‘영아’라며 보육시기로 보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36개월 이상, 72개월 이하는 ‘유아’라며 교육으로 보고 교과부가 관장하니 이 호칭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영아는 보통 젓먹이

어린이를 일컬으니 이젠 0-5세를 모두 ‘유아’로 통일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유아학교’라 쓰고 유아학교 2, 3, 4, 5세반, 종일반 유아학교, 오전반 유아학교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옛말은 오히려 지금 정말 맞는 말이 되었다. 그만큼 0-3세 교육이 중요하단 생각이다. 유아교육 시작 시점인 만 3세 이전에 모든 정서, 감성, 습관이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고 이미 선현들은 그것을 간파했는데 아직도 보육과 교육을 구분해 서로 밥그릇 싸움이니,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학부모 고통은 안중에도 없으니 교육전문가와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 보육과 교육은 결코 나눌 수 없다. 보육이 곧 교육이고, 교육이 곧 복지니까 교육을 잘하는 것이 복지라는 생각으로 풀어야 한다.
-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보육과 교육으로 나뉘어 보건복지부와 교과부, 두 부처에 의해 따로 지원, 관리된다는 것은 안 될 일로 한시바삐 교육과 보육을 통합(유보통합)해야 한다.
 - 지난 대선을 앞두고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논의가 활발했는데 혼자 힘으로는 해낼 수 없다. 정권 차원에서 풀 문제지만 먼저 육아정책연구소 차원에서 이 좋은 연구 기회를 살렸으면 한다.
 - 누리과정 발전포럼에 참여하는 유보관련 학회 및 협회, 관련교수협의회, 유보관련 단체, 원로교수, 관련전문가, 언론인, 국회의원, 육아정책연구소, 양 부처 담당자 등등..., 이런 예산, 인력, 관심이라면 누리과정 내실화보다 급한 유보통합 논의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당연한 결정들이 이해관계자들, 부처, 학계, 업계 이기주의로 너무 시간을 끌고 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데 더 이상 뒷짐 지면 안 될 것 같다. ‘선 통합 후 문제해결’하면 안 되는 건지? 시설을 옮길 때 마다 모든 서류를 다시 떼야 하는 번거로운 제도를 언제까지 감내하란 말인가?
- 선진국은 대부분 교육과 보육을 교육부처로 통합했다고 한다. 거의 유일하게 우리만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두 부처 모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지지부진한 사이에 급속도로 시설이 늘어나 상황이 더 어려워진 책임을 져야한다. 놀이방, 미술학원, 속셈학원들이 세로 밀어붙여 지원을 받아냈고 시설

투자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늘어날 때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건 아닐 것이다. 진즉에 나섰어야하는 것 아닌가?

4. 유아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자.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학습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길 바란다.

유아시절은 학습보다는 놀면서 사회성을 배우고 즐거움, 행복을 만끽할 때다. 오히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이나 어린이집 종일반에 특별활동 명목으로 영어나 별도 수업이 학부모에게 은근히 강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어 참여하고 그것이 곧 얼마 전 발표된 영유아 사교육비의 실체라고 보면 된다.

무상보육, 양육 공약 아래 보육부담에서 해방되고픈 학부모에게 누리과정 정착을 통해 휴식과 자유놀이가 확보되었으면 한다.

12월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영유아사교육비가 년 2조7천억이고 만3세 미만(영아) 41.9%, 만2세 70.2%가 사교육비를 지출했다고 교육비 통계로 잡히는데 언제까지 보육을 교육이 아니라고 구분하며 떼어내려 우기려는지 묻고 싶다.

보육, 유아교육이 학부모 고통이 되고 유아는 급격히 줄고 있는데, 너무 커진 어린이집과 유치원 - 유치원은 국공립 4,502개소, 사립 3,922개소로 총 8,424개소 / 어린이집은 40,709개소로 - 총 5만 여개 유아교육 시설이 있는데도 왜 우리 아이들은 가고픈 유치원에 못가고 추첨에서 떨어져 울고 어린이집을 불만족 속에 택해야하는가? 모두 어른들 잘못이다. 누리과정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을 때 엄마들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차근차근 쌓이고 그 후 세대는 아예 아이를 안 낳으려한다.

그 많은 보육복지예산 쓰면서 실질혜택은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가 느끼지 못하고 시설로만 간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은 수정함이 마땅하다.

5. 결론

솔직히 교육과정이 문제가 아니다. 애들을 잘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사랑 속에 키워주면 된다. 조금 빨리 배우면 뭐할 거고 조금 늦은들 어떻겠는가? 육아가 즐거운 과정이 되어야한다. 엄마는 안심하고 맡기고 아이는 즐겁게 놀다오고, 아무리 유아교육이라 해도 많은 것을 담지 말자. 그 과정 자체가 배움이고 교육이니까.

누리과정 도입, 교육과정 통합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선결과제가 무엇인지 이젠 답할 때다.

1) 육아휴직 확대 반드시 필요하다.

육아휴직 확대로 0-3세 보육을 가능한 한 엄마에게 맡기고 3, 4, 5세는 누리과정으로 기른다면 좋은 유아교육이 될 것이다. 0-3세 시기 엄마와의 밀착은 정말 중요하다.

전업주부 엄마에게 손해 본다는 느낌을 주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자식교육을 위해 전업주부를 선택한 여성에게 사회는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육아환경 조성이 바로 육아휴직제 확대이다. 2-3년을 보장하면 보육도 해결되고 그 빈자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니 일석이조 아닌가?

2) 직장어린이집을 지역과 공유하게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어린이집을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으로 지원한다. 함께 출근하고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은 양자에게 심적 안정과 실질적 도움으로 사회 안전망이 되고 지역에 개방하면 지역소통과 사회공헌이 될 것이다.

3) 가정 양육을 늘리고 시설 양육과 혜택을 동일시해야 한다.

직장맘 경우도 양육비를 가정에 지원하면 어른들이 돌봐주실 수 있으니 노인복지문 제해결도 될 수 있다. 가정양육비 지급도 5세 까지 확대해, 3세 이후는 그 비용으로 개인이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수요자중심 정책으로 바뀌야한다.

안 보내면 안주는 방식이 무슨 무상보육인지, 과연 누구 위한 정책인지 고민해야 한다. 돈은 받고 교육 안 시킬까봐 시설 직접 지원을 주장하는데 세상에 자식 생각 안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일부에 대한 염려를 정책 기본으로 삼아선 안 된다.

0-2세 무상보육이라며 시설에 보내면 지원되고 가정보육하면 지원 안 되던 때에 갑자기 수요가 폭증해 정작 필요한 맞벌이 부부 아이들이 갈 곳 없어 발 구르던 것을 떠 올리면 정부 편익적 정책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

4) 국공립 유아교육시설을 확대하자.

현재의 시설이 포화상태라도 사립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것은 무상보육시대에 걸맞지 않는다. 공동화로 남는 학교시설의 활용 등, 국공립 시설을 50% 정도로 급격히 늘려 경쟁을 유도하고 수준미달의 시설은 자연 폐업하도록 시장 선택에 맡기며 교육의 질 향상, 학부모의 부담 경감 등 국가 책임을 늘려가야 한다.

5) 보육과 유아교육 학과 통합 문제도 시작할 때이다.

유보통합 논의의 큰 걸림돌인 교원양성 기관의 통합이 관건이다. 교육과 보육은 결코 나눌 수 없으므로 기존의 정책에 파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학과의 존치 이유보다 유아 입장에서 접근해 주길 당부한다.

6) 학부모 교육을 의무화해야한다.

누리과정 연구조사에서 지적한 대로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업주부의 오후 보육수요 증가는 개인주의, 편의주의 팽배로 인한 육아 기피현상인데 부모와의 밀착 중요성 등 학부모 교육과 사회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

학부모교육을 유치원이 감당한다는 것은 힘든 일로 누리과정 자체평가에서 다양한 부모교육, 지역사회 협력 등이 저조하게 나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모교육은 꼭 필요하고 지속적이어야 하기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부모자격증 발급, 부모교육 점수 누적제 등 제도 마련을 고민해야한다.

7) 방과 후 과정의 학습 위주, 강요와 부담은 처벌로 막아야한다.

어쩔 수 없이 맡겨야 하는 종일반에 학부모부담 수업을 강제하는 시설에 대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고발하도록 하고 이런 곳은 지원제한 등 처벌을 강화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켜주길 바란다.

8) 지역사회는 육아에 열려 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지역사회 도움은 필수적이다. 아이들이 귀한 시대에 도움요청은 오히려 행복이고 기쁨이므로 유아학교가 적극적으로

로 5-60대 유희인력을 보조교사로 참여시키는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 방과후 프로그램에 교육을 과도하게 넣는 것보다 돌봄 기능을 확대해 젊은 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에게는 할머니의 정을 느끼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

공원, 놀이터,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등을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면 부족한 공간 요소가 극복될 것이다. 원장의 적극적 협조 요청이 바로 성공열쇠이고 이를 누구나 반기며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일본에서 재건축학교 견학 중 노인요양시설과 유치원이 한 건물에 지어지는 추세임을 확인했는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준비해야 할 아이디어인 것 같다.

2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박 초 아 (전국시도보육정보센터협의회장, 울산광역시 보육정보센터장)

1. 들어가며

2013년 3월 3~5세 누리과정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누리과정 발전포럼」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반가운 일이다.

보육정책의 전달체계인 보육정보센터의 입장에서 보육현장과 학부모, 지역사회기관을 연계하여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2. 5세 누리과정의 적용, 밀거름이 되다

5세 누리과정이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5세 누리과정의 제정, 해설서와 지침서 발간, 지도서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세 담당교사의 집합연수와 원격연수에 이르기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했다. 컨설팅을 하러 현장에 드나들면서 5세반 교실에서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모습과 부모들의 반응들을 엿보면서 희망을 보았다.

2007년에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제정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육현장에서 표준보육과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잘 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보육정보센터에서 교사교육과 수업 컨설팅을 통해 표준보육과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애를 썼지만, 정책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데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5세 누리과정은 교사교육을 필수로 하고 5세 담임수당을 책정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띄어서인지 5세 교사들의 책임감과 진지함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고, 이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었다.

5세 누리과정을 적용해 왔던 경험들을 발판 삼아 이제 3, 4세 누리과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할 때이다.

3.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안

1) 부모 연계 활성화 방안

- (누리과정 정책 홍보의 다각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행한 『육아정책 Brief』(통권 제9호, 2012. 12월)에 따르면, 부모들이 ‘5세 누리과정’을 인지하게 된 시점이 정책 발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가 가장 많았다. 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 시·도청(보육정보센터), 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누리과정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누리과정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하철이나 버스, 관공서 엘리베이터(영상 모니터를 통한 홍보자막)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홍보 전략을 세워 부모에게 누리과정 정책에 대해 제대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부모들이 자주 활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부모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카페 등에 배너를 연결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때 누리과정이 한글이나 수학의 선행학습이 아니라 창의·인성을 포함한 놀이 중심 통합과정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부모들의 인식을 제대로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 (누리과정과 관련한 가정연계 프로그램 마련) 누리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창의·인성교육,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과 관련하여 가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 **창의·인성교육 가정연계 프로그램** : 유아 인성교육이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만 하는 것으로는 어려우므로 가정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일차적인 장소가 가정임을 인식하고 어린이집의 인성교육에 가정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정 내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부모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하여야 한다. 창의·인성교육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에 개발한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창의성교육 프로그램’과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창의·인성교육을 가정과 연계하여 함께 실천하도록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에 개발한 5세 누리과정프로그램을 보완, 창의·인성교육

과 관련된 활동과 가정 연계 활동을 추가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창의성·인성교육프로그램 부모교육자료(교육과학기술부,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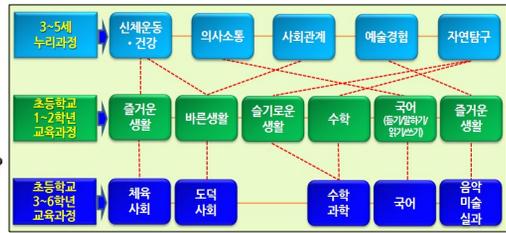


〈포항삼성어린이집 만5세아의 인성교육 활동자료 예시〉

-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프로그램 :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와 관련해서 현장의 교사나 부모들은 누리과정의 어떤 내용이 초등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 특히 5세 후반에는 인근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마련하여 가정과 연계하거나, 3~5세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의 연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그림 형태로 제시하여 부모에게 안내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한 예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7~2008년도에 개발한 유치원 교육정책 안내책자 ‘유치원은 첫 학교입니다’와 보육시설 홍보물 ‘어린이집의 약속’ 리플릿 등에 3~5세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에 관한 내용을 공통으로 담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유치원 교육정책 안내 책자 내용 중 일부 (육아정책연구소, 2007)〉



〈3~5세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 연계(안)〉

- (누리과정의 핵심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 마련)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가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위원 교육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위원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과정 전반과 하루일과의 특성 등을 안내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고양시킬 수 있다. 한 예로, 2012년 중앙 및 시도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위원과 원장 총 13,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 부모 대상 누리과정 설명회 :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설명회를 통해 특히 혼합연령반의 장점이나 바깥놀이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2012년에 울산보육정보센터에서 부모 약 200명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부모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어린이집 보육과정이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적용되는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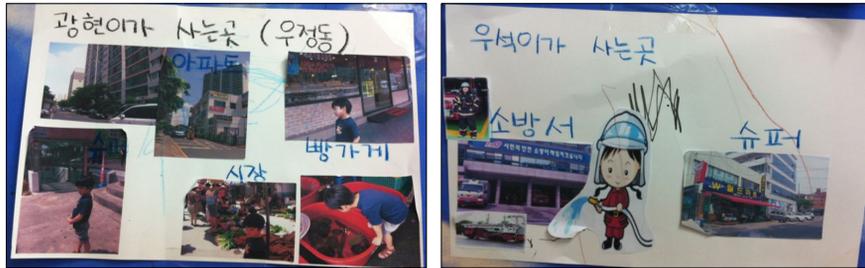
“정책적인 관점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부모로서 이득만 보려 했던 마음,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올바른 지침을 얻을 수 있었어요.” 〈부모2〉

“막연했던 교육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어 좋았고, 무엇보다 부모가 중심을 잡고 국가와 교육기관을 믿고 맡겨야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3〉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며 협력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4〉

- **부모교육 주제 및 강사 지원** :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 자체 부모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의 이해’를 부모교육의 주제로 선정하고,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다. 이를 부모교육 자료로 만들어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부모 대상 오리엔테이션** : 매년 2월경에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신입원아 부모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과정(누리과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가정 연계 및 협력관계를 강조할 수 있다. 정부 또는 보육정보센터 등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한 PPT 또는 간단한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어린이집 현장에 보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수업참관 및 수업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 부모는 누리과정을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워한다. 부모가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수업에 직접 전문가로 참여하여 유아들과 함께 활동을 직접 해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활동이나 바깥놀이를 진행할 때 보조교사로 참여하거나, 그림책을 읽어주고 요리활동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수업참여 프로그램의 계획, 진행, 평가와 관련하여 보육정보센터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 **가정에서의 준비물 또는 과제를 통한 가정 연계** : 어린이집에서 매월 누리과정을 적용한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가정에서 함께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과제 또는 준비물로 제시하는 방법도 있다. 한 예로, 2012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5세 누리과정 프로그램에는 매주 주간보육계획안에 주제와 관련한 가정연계 활동이나 준비물 등이 명시되어 있다. 울산 지역의 한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만5세반 담임교사가 6월 ‘우리 동네’라는 주제를 진행하면서 가정연계 활동으로 유아가 살고 있는 동네의 약국, 빵집, 슈퍼마켓 등의 사진을 찍어오도록 과제를 내주었다고 한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면서 아이의 모습과 함께 동네 건물 사진을 찍어 보내왔고, 교사는 전지에 사진들을 붙이고 ‘00가 사는 곳’이라고 제목을 적어 벽에 붙여주었다. 아이는 말을 제대로 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 모습이 담긴 익숙한 동네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관심을 많이 보였다. 교사에 따르면, 어머니가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서 우리 아이한테도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을 해주시니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장애아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그저 잘 지내고

만 올 거라 생각했으나, 5세 장애아에게도 체계적으로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교육’이라는 것을 해주고 있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교육을 하고는 있었겠지만, ‘누리과정’이 정책적으로 강조되면서 부모가 교육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만5세반의 가정연계 활동자료 예시〉

- 유아 관찰기록 및 활동 결과물을 토대로 한 유아평가와 체계적인 부모 면담 : 어린이집에서는 누리과정을 준거로 각 연령별로 달성해야 할 보육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기적인 유아 관찰기록이나 활동 결과물을 모아 누리과정 적용 전과 후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정기적인 부모 면담을 통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 부모는 누리과정 적용을 통해 유아가 어떻게 발달하였는지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면담을 통해 가정에서 함께 협력해야 할 부분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



〈교통기관을 주제로 한 만3세아의 자전거에 대한 표상능력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시〉

2) 지역사회기관 연계 활성화 방안

-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누리과정을 제대로, 충실히 적용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주변에 어떤 지역사회 자원이 있는지, 유아들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연계 프로그램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등을 연초에 미리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 **인근 병원 및 보건소 등과의 건강주치의제 협약** : 유아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체격검사, 건강교육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근 병원 및 보건소 등과 건강주치의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별 협약보다는 보육정보센터나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 **인근 초등학교와의 연계** : 만5세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서 인근 초등학교와 사전에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이 과정은 필수적이다. 업무협약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공문을 초등학교에 보내고, 초등학교 탐방, 초등학교 교사의 일일 초청 등의 활동을 함께 계획하여 진행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 부모도 함께 참여하거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부모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도 있다.
- **노인정, 노인봉사단체, 경찰서, 교통안전체험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과의 연계** : 나눔, 배려, 협력, 존중, 질서 등 인성교육을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역 사회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직접 찾아내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연합회가 정보를 찾아 제공할 수 있다.
- **누리과정 지도서(프로그램)의 주제별 관련 견학 장소의 발굴 및 연계** : 누리과정 지도서(프로그램)의 주제마다 관련된 견학 장소나 전문가 초빙 활동들을 목록화하여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것도 누리과정을 실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상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하나의 정책이 수요자인 부모 개개인에게까지 체감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평가인증제’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처럼 말이다. 누리과정의 운영 역시 오늘과 같은 발전포럼을 통해, 그리고 이 자리에서 논의된 여러 제안들을 정부 차원에서 현실화시킬 때 훨씬 더 빨리 정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누리과정 발전포럼」
결과 보고**

2012년 「누리과정 발전포럼」 결과 보고

□ 누리과정 발전포럼 발족식 논의 사항

- 포럼 운영 목적 및 방향
 - 「누리과정 발전 포럼」의 발족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보며,
 - 포럼을 통해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합심하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
- 모든 논의에서는 유아의 발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 누리과정을 직접 실행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을 핵심적으로 다룸

□ 제 1차 누리과정 발전포럼 결과보고

- 「누리과정 발전 포럼」 통해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합심하여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여 모든 포럼 논의 시에는 유아의 발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누리과정을 직접 실행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을 핵심적으로 다루기로 함.
- 포럼 향후 추진계획(안) 논의
 - 결과보고에 제시한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함.
 - 전체적 운영 방식은 포럼 자체의 모임으로 하는 것과 대외로 공개하는 세미나로 운영하되 총 8회의 포럼을 개최함. 그중 공개세미나는 2회 운영 예정임.
 - 단, 추후 위원들의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수렴 가능함.

□ 제 2차 누리과정 발전포럼 결과보고

- 「누리과정 발전 포럼」 통해 5세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원장, 교사, 학부모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교사, 학부모 등에 대한 누리과정 홍보의 필요성과 원장, 원감, 전문직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을 도출함.

□ 제 3차 누리과정 발전포럼 결과보고

- 누리과정 질 제고 관련하여 ‘기관별 누리과정 운영 변인’과 ‘교사 변인’의 2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함.
 - ‘기관별 누리과정 운영 변인’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현장연구를 통한 학급 구성 기준 마련, 장애유아에 대한 배려, 시설 공간 및 교구에 대한 기본적 환경의 기준 제시, 누리과정 운영비용의 표준화 등에 의한 논의가 있었음.
 - ‘교사 변인’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누리과정 관련자(교사, 원장)에 대한 연수, 누리과정 전달을 위한 슈퍼바이저, 교사 양성 자격과정의 보완, 전문가 집단 내 전달체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제 4차 누리과정 발전포럼 결과보고

- 제 4차 누리과정 발전포럼은 공개세미나로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함.
 - 김은설 연구위원은 5세 누리과정 운영현황 조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 개선 방안과 기관유형별 개선 방안을 제시함.
- 발표에 이어 홍용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혜영(창원대학교 교수), 박영란(서울동아유치원장), 서원경(중앙청사한빛어린이집원장), 김희선(서울은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김수정(구립 물빛어린이집 교사) 등 지정토론자 6인의 토론이 이루어졌음.
 - 홍용희 교수는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교사 확보’를 제안하였고, 누리과정에 대한 유치원 교사 연수 시 누리과정과 기존 유치원교육과정과의 공통점을 인식시킨 후 첨가되고 강화된 부분을 소개하여 친숙함과 활용 동기를 증진시킬 것을 제안함.
 - 최혜영 교수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를 제시하고, 김은설 연구위원의 발표에서 도출된 논의점을 기관운영 현황과 학급 운영 현황에 따라 제시함.
 - 박영란 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프라 차이, 누리과정의 내용, 교사의 자격 및 교육, 물리적 환경 개선, 재정지원 등에 대해 유치원 입장에서 느낀 문

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

- 서원경 원장은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누리과정 교사 연수, 부모 인식 전환, 유아 성취도 평가 및 누리 과정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하여 제안함.
- 김희선 교사는 누리과정의 내용, 편성 운영현황, 교사연수, 장학지원, 학부모 인식제고 및 홍보, 유치원 기관의 시설 설비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요구함.
- 김수정 교사는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부담감, 수당, 교사연수 및 지원인력의 필요성, 학급 운영 등 교사가 느끼는 문제점을 제시함.

□ 향후 계획

○ 제 6차 포럼

- 일시 및 장소 : '13. 04. 04(목) 16:00~19:00, 세종호텔(만찬 포함)
- 누리과정 운영의 질관리 방안을 주제로 2개 소집단으로 운영하고자 함.
 - 소주제 1 : 누리과정 운영 평가 방향 및 지표
 - 소주제 2 : 기존 기관평가(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와의 연계 방안



3. 부 록

붙임1

「누리과정 발전포럼」 추진 계획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13년에 3-5세 까지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의견 차이 및 갈등을 최소화하고, 유아교육·보육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각계각층의 통합된 시너지 창출 필요
 - 모든 만 5세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5세 누리과정' 제도 도입 계획 발표('11.5.2) 및 공통과정 고시('11.9.5)
 - '13년 3월부터 만 3, 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시행하는 '3-4세 누리과정 도입 계획' 발표('12.1.18)

⇒ 3-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13년)에 따라 누리과정의 효율적인 추진 및 유아교육·보육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누리과정 발전포럼」 운영 필요

2. 추진 목적

- 누리과정과 관련된 유아교육·보육 제도 및 정책에 대하여 유아교육·보육계를 포함한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수렴 및 교류의 장 마련
-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실천적 협력 및 정책 모니터링 강화
- 전문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최적의 전문화된 누리과정 지원체계 구축 및 지지 기반 마련

3. 추진 방식

- 포럼 주관 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포럼 운영 기간 : 2012. 7 ~ 2013. 6(1년간)
- 포럼 개최 형식 및 횟수
 - 자체 토론회 및 공개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
 - 1년간 8회 개최('12년도 4회, '13년도 4회 예상)
 - 자체 토론회는 조찬 또는 만찬 형식으로 개최
- 포럼 주제 :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 및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 등과 관련 주제 등
- 구체적인 포럼 운영 방식과 향후 추진 일정은 1차 포럼에서 협의하여 결정
 - 주제별 발표자와 토론자 선정 방법 등 포함

붙임2

「누리과정 발전포럼」 위원 구성

구분	연번	성명(소속, 직위)	단체명/기관명	비고
유아교육· 보육 관련 학회 및 협회	1	이정욱(덕성여대 교수)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
	2	김명순(연세대 교수)	한국아동학회	보육
	3	표갑수(청주대 교수)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보육
	4	김규수(원광대 교수)	열린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
	5	심익보(충청대 교수)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유아교육/보육
	6	이미정(여주대 교수)	한국보육학회	보육
	7	최연철(건국대 교수)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
	8	임재택(부산대 교수)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
	9	서영숙(숙명여대 교수)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보육
	10	지성애(중앙대 교수)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유아교육/보육
	11	홍용희(이화여대 교수)	한국육아지원학회	유아교육/보육
	12	황해익(부산대 교수)	한국보육지원학회	보육
	13	이순례(강남대 교수)	대한어린이교육협회	-
	14	김성일(고려대 교수)	한국마음두뇌·교육협회	-
유아교육· 보육 관련 교수 협의회	15	윤길근(부천대 교수)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유아교육
	16	백혜리(서울신학대 교수)	전국보육과 교수협의회	보육
	17	이숙희(중앙대 교수)	한국보육아동 관련학과 교수 협의회	보육
유아교육· 보육 관련단체	18	석호현(유치원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	유아교육
	19	전호숙(유치원장)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유아교육
	20	류지후(유치원설립자)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장	유아교육
	21	정광진(어린이집원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보육
	22	백운찬(울산꿈나무특수 어린이집 원장)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보육
	23	이순희(피랑새어린이집 원장)	공공형어린이집협의회장	보육
유아교육· 보육계 원로 교수	24	이원영(전 중앙대 교수)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PECERA) 아태지역 회장	유아교육계 원로
	25	이은해(전 연세대 교수)	한국보육진흥원 이사장	보육계 원로

구분	연번	성명(소속, 직위)	단체명/기관명	비고
관련 전문가	26	이재인(원장)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보육사업
	27	조원철(연세대 교수)	규제개혁위원회행정사회분과 위원장	신문방송학
	28	서유현(서울의대 교수)	한국뇌연구원원장	의학
	29	이경자(학부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학부모단체
	30	정혜숙(학부모)	평가인증 부모서포터즈	학부모
	31	이영(한양대 교수)	경제금융학부	경제학
	32	이광우(연구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교수 학습본부장	교육과정
	33	우명숙(교원대 교수)	교원정책대학원	교육행재정
	34	이명희(중부대 교수)	유아특수교육과	한국유아특수 교육학회부회장
	35	이재원(부경대 교수)	행정학과	보육정책
언론인	36	양영유	중앙일보 편집부 행정국장	
	37	김은주	연합뉴스 논설위원	
국회의원	38	김세연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당 간사	
	39	유기홍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간사	
	40	유재중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41	이목희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육아정책 연구소	42	이 영(소장)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아동학
	43	장명림(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유아교육
	44	이미화(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2팀장	보육
	45	김은영(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팀장	간사
	46	조혜주(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사업지원
	47	남상보(인턴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인턴연구원	사업지원

<부처 참석자>

부처	연번	성명(직위)	소속과	비고
교육과학 기술부	1	정종철 정책관	미래인재정책관	
	2	정병익 과장	유아교육과	
	3	안정은 장학관	유아교육과	
	4	장석환 사무관	유아교육과	
	5	김선숙 연구관	유아교육과	
보건 복지부	1	조남권 정책관	보육정책관	
	2	김현준 과장	보육정책과	
	3	신옥수 서기관	보육정책과	
	4	박성원 사무관	보육기반과	
	5	이성우 주무관	보육정책과	

붙임3

「누리과정 발전포럼」 토론회 개최 일정 및 토론 주제

구 분	주제 명	운영 방식	일정
발족식 및 제1차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 운영 목적 및 방향, 주제 논의 - 누리과정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과제 발표 * 발표자 : 장명림(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전체 토론	'12. 7. 26(목), 만찬 세종호텔 (3층 세종홀)
제2차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세 누리과정 현장 적용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발표자 : 전호숙(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오경숙(구립 면일어린이집원장) - 누리과정 내용의 강조점(실천적인 창의·인성교육 강화(정서포함), 인터넷 게임중독예방, 유아특수 및 장애아배려 교육내용 및 지원안) 	전체 토론	'12. 9. 6(목), 조찬 세종호텔 (3층 세종홀)
제3차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질 제고 관련 요인별 소집단 토론 - 발표자: 김영옥(전남대 교수), 이완정(인하대 교수) 	소집단 토론 (2개 분과)	'12. 10. 18(목), 16:00~만찬

■ 2013년 제5차 누리과정 발전포럼

구 분	주제 명	운영 방식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주제 1 : 기관별 누리과정 운영 변인 - 소주제 2 : 교사 변인 		대한상공회의소
제4차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3차 포럼 토론 결과, 공유하거나 공론화해야 할 내용을 공개세미나에서 다룸.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육아정책연구소 2012년도 기본연구과제 조사 결과 중심) 	공개 세미나	'12. 11. 14(수), 14:00~18:00 포스트 타워 대회의실
제5차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 발표자 : 이경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박초아(울산광역시 보육정보센터장) 	전체 토론	'13. 2. 28(목), 조찬 세종호텔 (3층 세종홀)
제6차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운영의 질 관리 방안 - 소주제 1 : 누리과정 운영 평가 방향 및 지표 - 소주제 2 : 기존 기관평가와의 연계 방안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소집단 토론 (2개 분과)	'13. 4. 4(목), 만찬 세종호텔
제7차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 양성 체제 및 자격 관리 -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 자료지원, 심화연수 및 보수교육 등 	공개세미나	'13. 5. 23(목), 오후 포스트 타워 대회의실
제8차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의 성과와 과제 - 3-5세 누리과정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원 과제 논의 - 1년간 운영한 「누리과정 발전 포럼」 정리 * 보고서 발간 계획 및 향후 추진 계획 논의 	전체 토론	'13. 6. 20(목), 조찬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